

미군상대 접대부 엽기적 피살

96.9.8

경찰, 미군과 공조수사

7일 오전 10시8분께 경기 동두천시 보산동 429 허아무개씨 집에 들어 사는 이기순(44·여)씨가 목이 반쯤 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이 건물 관리인 문성옥(39·여)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.

문씨에 따르면 이날 이씨를 깨우려고 방문을 열어 보니 이씨가 목 앞부분이 날카로운 흉기에 찔리고 많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는 것이다.

경찰은 이씨가 미군들을 상대로 접대부 노릇을 해왔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 미군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미군 제2사단 범죄수사대와 공조수사를 펴고 있다.

동두천/권기식 기자

어린이성폭행 20년구형

창원지검 류영하 검사는 7일 아파트단지 지하실에서 초등학교 2명을 한달새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낙철(23·창원

시 대방동 덕산아파트)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송씨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.

창원지법 제2형사부(재판장 김상호 부장판사)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류 검사는 “송 피고인이 11살에 불과한 어린이 2명을 성폭행하면서 흥기를 사용해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고 으르는 등 죄질이 몹시 나빠 중형을 구형한다”고 밝혔다. 창원/김현태 기자